

# 광주시, 도시가스 안정 공급 '3대 원칙' 장치 마련

### 이용섭 시장 맥쿼리 견제장치 주문 직원 고용·근무 환경 악화 방지 시장 승인권 활용 요금 인상 차단 법 개정 나서고 관리 감독도 철저

광주시가 투자 전문회사의 도시가스 공급 업체 인수에 따른 지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3대 견제장치'를 정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에너지

전문기업이 아닌 투자회사 맥쿼리한국인프라(이하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 8개 시·군에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를 지역사회와 공감대 없이 인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해양에너지 부실화, 직원고용·근무환경 악화 등을 막을 수 있는 3대 견제 원칙을 정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가장 먼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인 요금 승인권을 적극 활용해 요금 인상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도시가스 등 공공재

에 대한 양도·양수시엔 반드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이는 맥쿼리측이 일방적으로 높은 가격에 또 다른 투자자본 등에 해양에너지 지분을 매도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최근 맥쿼리측이 광주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도 집중한다. 맥쿼리측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 배포한 참고자료 등을 통해 ▲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 존중 ▲ 자본구조 준수 ▲ 근로자 고용 승계 ▲ 연료전지 발전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와 고용 창출 ▲ 시민 사회 소통과 사회 공헌 활동 등 5가지를 약속

했다. 이 시장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사도지사 승인 사항이고, 시민생계비 부담 감소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지난 3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해왔고 이 기조는 앞으로 계속될 테니 시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다만 "현행 법령상 인수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반대 논쟁이 장기화하는 것은 광주 투자 이미지와 지역경제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앞으로 양질의 도시가스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에 지역사회 역할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지역 중소기업에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광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600억원으로, 상반기에 지원된 1600억원을 포함하면 지난해보다 200억원 확대된 총 2200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광주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주 일시상환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로,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등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용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사·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여수국가산단 5G 스마트산단 추진

전남도가 20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남지역본부, LG유플러스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5G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여수국가산업단지를 5G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산단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총사업비 39억원을 들여 여수산단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5G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설 구축은 LG유플러스가 맡는다. 석유화학산업단지 특성을 고려, 석유화학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다양한 펌프설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고가의 배기가스 전용센서 없이도 배출 농도를 측정하는 가스센서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이 큰 전력배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솔루션 도입이 끝나면 5G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면적이 넓고 시설이 복잡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AI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kwangju.co.kr



전남도-한국맥도날드 로컬푸드 공급 확대 협약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무안군 맥도날드 남악점에서 한국맥도날드, ㈜오뚜기, 델몬트, ㈜금화 간 전남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남도, 미국 아마존 진출 기반 세계시장 겨냥 나서

### 전남 브랜드관 설치 1년만에 262만 달러 수출 성과

전남도가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지방정부로는 세계 최초로 지난해 7월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한지 1년 만에 262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영국과 EU, 캐나다 등 전 세계 온라인시장 진출에 나서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20일 "미국 현지에서 '아마존 전남 브

랜드관'을 위탁 운영하는 크리에이티브(대표 선장)를 초청, 지난 18일까지 3일간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활성화를 위한 임업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선장 대표 일행은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에 올해 새롭게 전략품목으로 입점할 예정인 담양 세아푸드의 고춧가루, 곡성 석곡농협의 백세미, 완도 세계로수산의 모듬해초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과 디자인 컨설팅을 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입문이 난 김치를 아마존에 입점시키기 위해 김치 생산 기업을 방문하고, 두부스낵과 동결건조 가공식

품 제조기업 관계자를 만나 아마존 입점을 협의했다. 또 지난 2020년 아마존 전략품목으로 선정돼 브랜드관에서 판매 중인 고흥유자, 해남고구마, 광양매실, 완도전복, 여수견어묵, 신안유기농김, 순천장류 등 7개 가공식품 생산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개선방안은 물론 향후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견여몰 스낵 생산기업(주)아라운의 김미선 대표는 "아마존의 비싼 수수료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우리 제품이 미국 아마존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국내외 마케팅에

큰 효과가 있다"며 "아마존 진출로 미국 내 오프라인 주류 시장 진출은 물론 유럽과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선장 대표는 "전략품목으로 선정한 7개 기업 제품은 현지 맞춤형으로 개발한 제품과 영문 디자인 덕분에 전남 브랜드관의 전체 매출을 견인하며 아마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일부 제품은 아마존 판매 인기에 힘입어 미국 대형 유통 바이어와 현지 오프라인 마켓 입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크리에이티브는 연내 한국지사를 설립해 전남지역 수출기업 제품의 아마존 입점을 통한 현지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과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효과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kwangju.co.kr

## 광주시, 100번째 AI 업무협약 61개 사 광주에 사무실 개소

인공지능(AI) 중심도시를 선언한 광주시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잡은 기관, 기업이 100곳을 돌파하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야주산원, 카카오펀터프라이즈와 광주형 AI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야주산원은 최근 계열사 코크넷나인을 통해 AI 기반 서비스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카카오펀터프라이즈는 카카오키의 기술 조직 AI 랩이 분사했으며 인공지능 기반 기업형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다. 광주시는 2019년 10월 인코어드 P&P를 시작으로 1년9개월여 만에 100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 92개, 관련 기관 또는 협회 8개다. 분야별로는 빅데이터 32개, 헬스케어 18개, 육성지원 12개, 보안 8개, 자동차 7개, 로봇·드론 5개,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 3개, 에너지 2개, AI 융복합 등 기타 13개다. 한국지능정보산업협회가 발표한 AI 융합 100대 기업 중 미소정보기술, 스프링클라우드, 이스트소프트, 아크릴, 솔트룩스, 애자일소다, 크라우드웍스, 클로봇 등 8개가 포함됐다. 본사를 이전한 9개를 포함해 30개 사가 법인을 설립하는 등 모두 61개 사가 광주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근무 인원은 242명으로 광주 AI 창업캠프(19개), 아이플렉스(9개), 광주 테크노파크(7개) 등에 등지를 틀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A | AIG | 하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